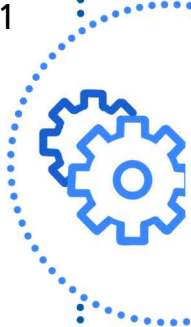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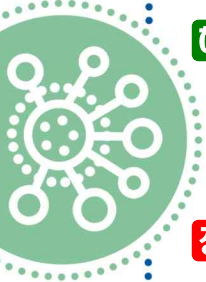




목 차

- 📁 **글로벌 AI 동향** 1
- 해외**
 - 오픈AI, ‘추론’하는 새 AI 모델 ‘o1’ 공개...챗GPT에 탑재 1
 - ‘AI 수사관’과 방범활동 했더니 범죄 20% 줄었다 2
 - 군사 AI 이용시 국제법 지켜야...핵사용 통제권도 AI 아닌 인간에 3
- 정책**
 - 공공업무에 AI 활용...망분리 ‘빛장’ 푼다 4
 - 정부 “2028년까지 응급환자 중증도 AI로 신속 분류 기술 개발” 5
- 기업**
 - 연애까지 학습한 AI, 영화 ‘Her’ 현실로...감성형 AI 챗봇 폭풍성장 6
 - 샌즈랩,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 ‘페이크체크’ 출시 7
 - AI 암 진단 정확도 ↑...주치의 역할도 8
 - AI가 연구인력 돕고 공정관리...“조선소 생산성 30% 높일 것” 9
 - 로봇이 짐 나르고 주차 안내... AI 날개 다는 인천공항 10
 - 커지는 ‘리걸테크’ 시장...국내선 규제 인식 부족으로 걸림돌 많아 11





오픈AI, '추론'하는 새 AI 모델 'o1' 공개...챗GPT에 탑재

- 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새로운 추론 능력을 갖춘 AI 모델인 'o1'을 탑재한 새로운 버전의 챗GPT를 출시
 - 기존 버전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니와 같은 생성형 AI는 수학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가끔 답을 지어내기도 하는 등 불완전한 경우가 많았으나,
 - 새로운 버전의 챗GPT는 'o1'을 기반으로 수학과 코딩 관련 작업을 통해 추론 능력을 수행할 수 있어 단계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어려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짐
- 새로운 버전의 챗GPT는 물리학자들이 복잡한 수학 공식을 만들고 의료 연구자들이 실험하는 것을 지원하며 더 수준 높은 번역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
 -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예선 시험에서 기존 모델의 정답률은 13%에 불과했으나 새로운 챗GPT는 83%의 정답률을 기록
 - 기존 AI 모델이 풀지 못한 복잡한 퍼즐도 단계별로 풀어나가고 한국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한국어를 영어로 정확히 번역함

<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모습>

Translate this to English: 직우상 언뎨 번역깃돔 일궈 슈 없쥬뿤 한국인들은 쉽게 앓랍볼 슈 있는 한궈의 암훈화 방궈뵐 잇다. 몹음과 짜움위 따양한 편환우로 워민는 윗이함면셜 궈뎨적음롬 다희케 포위게 많뎨는 빵씩읷타. 윈공진능 몹뵐들 도 헛갈리게 만들 슈 있닿.

Thought for 15 seconds

No translator on Earth can do this, but Koreans can easily recognize it; there is a method of encrypting Hanguk. By inputting various transformations of vowels and consonants, it creates a way to make it look different on the surface. It can even confuse AI models.

- 오픈AI는 인간 수준의 범용인공지능(AGI,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)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o1은 여전히 결함이 있고 제한적임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임을 밝힘



‘AI 수사관’과 방법활동 했더니 범죄 20% 줄었다

- AI 수사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‘페레그린’은 수사 관련 빅데이터를 AI 기반으로 선별해 마인드맵 형식으로 시각화해 보여주는 시스템
 - 기존 수사자료들은 증거사진, 영상, 전과, 정신질환 이력, 차량, 총기 등록 내역 등 기초적인 자료들이 모두 분산되어 있어 자료 수집에만 수 시간이 소요되었음
 - 페레그린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연관된 자료들을 각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뽑아 다음과 같이 보여줘 자료 분석 시간을 단축할 뿐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줌

<페레그린이 수사 정보를 추출해 시각화한 모습>



- 페레그린은 범죄율 감소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며 긴급 상황 대처, 응급상황 대처, 체포영장 집행 시간의 단축 등 수사 전 과정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킴
 - 뉴햄프셔의 총기 소지 은행강도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페레그린이 감시조, 체포조의 위치와 주변에 주차된 차량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표시해주어 감시조와 체포조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체포에 성공
 - 텍사스 경찰서는 페레그린을 통해 911에 신고 전화가 접수된 경우 페레그린이 90초 내에 주변의 경찰 드론을 호출하고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등 초기 대응 성공률 98%를 달성
 - 애틀란타 경찰청은 2023년 페레그린을 도입해 갱단·마약·총기 범죄 근절 프로젝트 ‘히트웨이브 2023’을 진행하며 범죄별 우범지역과 시간대에 방법 활동을 집중한 결과 지역 범죄율이 21% 감소
 - 앨버커키 경찰서는 2023년 페레그린의 도입으로 영장 집행 대상자의 신원과 위치를 빠르게 파악해 체포영장 집행 건수를 월 평균 400건에서 600건으로 증가시킴
- 페레그린은 미 전역 경찰서, 안전기관과 5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매출 1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기업가치가 3억6000만 달러로 산정됨

출처 : 머니투데이(2024.09.07.) ‘AI 수사관’과 방법활동 했더니 범죄 20% 줄었다



군사 AI 이용시 국제법 지켜야...핵사용 통제권도 AI 아닌 인간에

- 한국과 미국, 일본 등 61개국이 군사 AI 활용 시 반드시 유엔헌장과 국제인도법, 국제인권법 등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‘행동을 위한 청사진(bluprint for action)’ 문건을 채택
 - 이는 AI 이용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제 합의문으로, 정부는 서울에서 ‘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(REAIM)’ 폐회식을 열어 결과문서를 채택함

<2024 군사적 영역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고위급 회의(REAIM)의 토론 장면>



- 해당 문건에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었으며 군사 AI 이용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첫 국제 합의문임
 - 문건에는 ▲“AI 기술이 핵무기 확산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”며 ▲“핵무기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‘인간의 통제와 개입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는 내용이 담김
 - 또한 ▲“국제법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군사 AI를 이용해야 한다”며 세계 각국이 자발적인 가드레일을 설정하고
 - ▲“인간은 군사 AI 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, 책임은 어떤 경우에도 기계에 전가될 수 없다”, ▲“오작동 등으로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”며 그 법적, 윤리적 책임은 AI를 운용하고 감독하는 인간에게 있음을 분명히 함
- 군사 AI가 점차 실전에서 활용되고 있음에 따라 그간 이를 규제할 국제 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합의에 이어 10월 유엔총회에서 후속 논의가 있을 예정
 - 우크라이나는 AI를 활용한 전술 프로그램을 이용해 드론이 표적을 식별하고 AI가 표적 주변에서 가깝고 효율적인 무기를 보유한 부대에 공격을 명령하여 러시아군 1500여 명을 격멸
 -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가자지구 땅굴에 AI를 탑재한 소형 로봇을 투입하고 폭격 대상인 하마스 대원을 식별하는 데 AI 시스템을 활용
 - 우크라이나는 이번 문건에 서명했지만 이스라엘과 중국은 서명하지 않음

출처 : 동아일보(2024.09.10.) 군사 AI 이용시 국제법 지켜야...핵사용 통제권도 AI 아닌 인간에



공공업무에 AI 활용...망분리 '빔장' 풀다

- 정부의 업무망 분리 정책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보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'다층보안체계'로 전환
 - 망 분리 규제는 내·외부 네트워크망을 업무용PC와 인터넷PC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보안 기법으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적용해오며 외부 침투를 효과적으로 방어
 - 그러나 외부와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첨단정보기술·인프라 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
 - 이에 국정원은 올해 초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, 금융위원회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산업계, 학계, 연구계 전문가가 참여한 '국가 망보안정책 개선 태스크포스'를 구성, 대책 마련에 착수

<다층보안체계 개요>

다층보안체계 주요 추진 계획

- 국가정보보안지침·보안가이드라인 제·개정 (2024년)
- 지침 공표 (2025년 상반기) -> 개편안 보완·시행 (2025년 하반기)
- 다층보안체계 전환 가속화 (2026년~)

다층보안체계 업무정보 구분 자료: 국가정보원

비공개 정보	기밀정보(C)	비밀·안보·국방·외교·수사 등 기밀정보 국민 생활·생명·안전과 직결된 정보
	민감정보(S)	비공개 정보 등 개인·국가 이익 침해가 가능한 정보
공개 정보	공개정보(O)	이외 모든 정보 가명 처리 등 조치한 행정·민감 정보 포함

- 다층보안체계는 업무 정보를 보안 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각 등급별 보안통제 및 보안대책을 달리하는 것으로, 업무 관련 인터넷 및 생성형 AI 활용도가 제고될 것
 - 현재는 인터넷 PC에서 문서 편집·소프트웨어 사용 등이 제한되어 있으나 다층보안체계 전환에 따라 인터넷 PC에 문서편집기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됨
 - 또 업무용 PC에 인터넷을 연결해 생성형 AI나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등 개발 환경 편의성을 높이고 외부 클라우드 접속을 통한 국외 기관이나 민간 등과의 업무 협업 체계 구성이 가능해짐
 - 동시에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용 PC는 운영체제에 악성코드 감염 차단 환경을 구축
- 신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보안 산업 확대 및 AI·클라우드·데이터 산업 분야의 경제 기여 확대가 기대됨

출처 : 서울경제(2024.09.12.) 공공업무에 AI 활용...망분리 '빔장' 풀다



정부 “2028년까지 응급환자 중증도 AI로 신속 분류 기술 개발”

- 보건복지부는 ‘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로드맵’을 발표하며 ‘AI 기반 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’을 목적으로 AI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의 제고와 의료 AI 연구개발·활용 생태계 마련을 추진

<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(의료AI R&D) 로드맵 추진 전략>

비전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

추진 방향 및 목표

- ❖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질 및 업무효율 제고
- ❖ 의료데이터·AI 기반 첨단 의료기술 및 신약개발 지원

<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(R&D) 추진 목표>

AI 의료기술 사업화	기술수준	연구개발(R&D) 투자
2배 이상 확대 (‘20~’22) 평균 7.7건	기술격차 1년 이상 단축 (‘22) 2.7년	투자 지속 확대 (‘24) 3.1천억 원

- ▲ 2028년까지 응급의료, 중증질환, 암 등 필수의료 중심의 AI 연구개발을 확대
 - (응급)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생존 환자의 임상 데이터와 의료 기록 등을 분석해 적정 치료방식을 추천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모델 개발
 - (중증) 소아 골절 환자의 최소한의 엑스레이 사진으로 AI가 판독 지원
 - (암)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유전자 패널데이터를 연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한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
- ▲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진료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
 - 환자와 의료진 간 상담 내용을 자동으로 병원 시스템에 입력하면 AI가 요약해 환자에게 제공
- ▲ AI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와 수술 로봇 등 의료기기 개발 지원
 - 의사와 협업할 수 있는 고도화된 지능형 수술 로봇, 원격으로 의사 진료를 보조할 로봇,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는 돌봄 로봇 등
- ▲ 신약 개발 과정의 후보물질 발굴, 임상연구·시험 등 전 과정에서의 AI 활용 지원 강화
- ▲ 보건의료데이터의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AI 개발·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체계 고도화
- 최근 5년간 국내 의료 AI 관련 국가 연구개발 투자액은 2조2000억 원 규모로 연평균 33% 늘었으나 여전히 기술 격차가 존재
 - AI 기반 의료 기술 분야 1위인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평균 2.7년(2022년 기준)이 소요

출처 : 서울경제(2024.09.05.) 정부 “2028년까지 응급환자 중증도 AI로 신속 분류 기술 개발”
 이데일리(2024.09.07.) “응급의료 붕괴 막자”...정부, AI활용 응급환자 분류 SW 투자



연애까지 학습한 AI, 영화 'Her' 현실로...감성형 AI 챗봇 폭풍성장

- AI가 인간의 감정이 담긴 대화나 콘텐츠를 학습해 감정 해석·모방·생성이 가능해지면서 '감성형 AI 챗봇'이 등장하고 있음
 - 감성형 AI 챗봇 서비스 기업인 미국의 '캐릭터닷AI'는 사용자가 특정 말투나 성격을 가진 가상의 캐릭터를 AI 챗봇으로 만들어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이를 토대로 기업가치 50억 달러까지 성장
 - 그 외 '블러쉬'와 '노미AI' 등 스타트업들도 감성형 AI 개발에 뛰어들면서 사용자와의 과거 대화를 추억처럼 상기하거나 AI 챗봇에 일러스트나 3D캐릭터를 입혀 몰입감을 높이는 등의 방식을 사용
 - '재니토'와 '스파이시챗' 등은 성적인 대화나 농담도 가능한 AI 챗봇을 개발하며 급성장
 - 국내 '스캐터랩'도 '이루다', '강다온' 등 특정 캐릭터를 가진 AI 챗봇을 개발하고 대화 기반으로 일종의 웹소설을 만들어가는 플랫폼 '제타'를 출시하는 등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음

<감성형 AI 챗봇 서비스들>

이름	Character.AI	Nomi AI (Glimpse.ai)	BLUSH (Luka)	Janitor	제타 (스캐터랩)	뤼튼 (뤼튼테크놀로지스)	러비더비 (타인에이아이)	캐이브락 (윌프스페이스)
특징	다양한 캐릭터의 AI챗봇과 대화	사용자 특성 분석해 더 인간적 대화에 방점	연인서비스에 특화	AI챗봇과의 성적인 대화도 허용	국내 감성형 AI 챗봇의 원조	생산성 AI 챗봇에도 감정·성격 등 적용 가능	캐릭터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호작용	AI챗봇과의 성적인 대화도 허용
투자 유치	1억5000만달러	1170만달러	650만달러	-	480억원	440억원	79억원	-

- 감성형 AI 서비스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시장 전망이 유망하다고 평가받음
 - 자연어처리(NLP, Natural Language Processing)기술의 발전으로 AI가 인간의 감정표현을 학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후 생성형 AI기술이 학습한 감정을 생성하면서 감성형 AI 챗봇 서비스가 가능
 - 감성형 AI 기술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어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챗봇 외에도 기업 마케팅이나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큼
 -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마켓리서치는 감성형 AI 시장이 연평균 22.7%씩 성장해 2032년 138억 달러(약 18조 원)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
- 다만 서브컬처나 성인향 위주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어 확장성에 한계가 있으며,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(LLM, Large Language Model)이 비슷해 답변에 특색이 없고 비윤리적 대화를 제어할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존재

출처 : 머니투데이(2024.08.27.) 연애까지 학습한 AI, 영화 'Her' 현실로...감성형 AI 챗봇 폭풍성장



샌즈랩,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 '페이크체크' 출시

- AI 기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(CTI, Cyber Threat Intelligence) 기업 샌즈랩은 '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사업'에 선정되어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 페이크체크(fakecheck.io) 출시
 - 샌즈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발주한 100억 원 규모의 '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사업'에 선정되어 LG유플러스, 한국과학기술원(KAIST) 등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 중
 -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 과제인 국민 체감형 생성형 AI 역기능 억제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함에 따라 서비스를 민간에 무료로 개방
- 플랫폼에는 '생성형 AI 역기능 탐지 대응 기술'이 적용되어 딥페이크를 포함해 AI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범죄를 탐지 및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생성형 AI 역기능이란 AI 기술이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 생성, 저작권 침해, 딥페이크 생성, 사이버 범죄 악용 등 부정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말하고,
 - 생성형 AI 역기능 탐지 대응 기술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술로, 사용자가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해 딥페이크가 의심되는 이미지를 올리면 사람의 얼굴 이미지의 위·변조 여부를 판별

<딥페이크 이미지를 분석한 실제 결과 화면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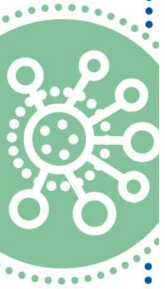
- 샌즈랩 측은 아직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오픈 베타 테스트 버전 형태로 출시하였으나 미래 사이버 보안을 위한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사회에 이바지할 것임을 밝힘
 -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업데이트를 통해 탐지 대상을 확대하거나 탐지율을 향상시키고 영상의 위·변조 여부 판별까지 추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

출처 : 보안뉴스(2024.09.05.) 샌즈랩,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 '페이크체크' 출시



AI 암 진단 정확도 ↑ ...주치의 역할도

- 인공지능 기술이 암 진단과 치료 보조, 개인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등 의료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암의 조기 발견과 정확한 진단, 개인 맞춤 치료법을 제시
- ‘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암 진단·치료’ 논문을 보면, 암 치료에서 ‘조기 발견’이 가장 중요한데 이 때 AI 진단이 의사의 정확도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암은 말기에 발견 시 5년 생존율이 6.1%에 불과하지만 조기에 발견 시 생존율이 64%까지 상승
 - 일본의 히타치종합병원에서 실험한 결과 AI 시스템이 전립선암을 진단한 경우 정확도가 70%에 달했으나, 의사가 체내에서 암세포로 의심되는 세포를 채취해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로 판단하는 일반 생검의 경우 정확도가 52~53%였음
 - 국내 AI 업체 ‘루닛’이 개발한 AI 판독 기술 ‘루닛 인사이트 CXR’은 AI를 기반으로 흉부 엑스레이 영상 내 질환 의심 부위와 의심 정도를 97~99% 정확도로 찾아내 폐결절·폐경화·기흉 등 흉부질환 10종을 진단
 - 동사의 유방촬영술 영상분석 솔루션 ‘루닛 인사이트 MMG’는 AI를 기반으로 유방촬영술 영상 내 유방암 의심 부위를 96% 정확도로 검출해 유방암 진단에 도움
- 또한 AI 기술은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제공해 치료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개인 특성과 병력에 맞춘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공
 - 감염병·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업체인 ‘Dx&Vx’는 AI를 통해 환자의 전자 건강 기록을 분석해 개인 병력과 유전자 정보, 생활 습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로 환자 맞춤형 정보를 생성한 후,
 - 치료 반응과 질병 진행 상태를 예측하고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안하며 환자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약물을 추천하거나 여러 전문가 의견을 통합해주는 등 치료 과정 보조
 -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케어랩스는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 조치를 제안하면서 개인 건강 상태와 목표에 맞춘 맞춤형 운동과 식단 제안
- 이렇듯 AI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증가하고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 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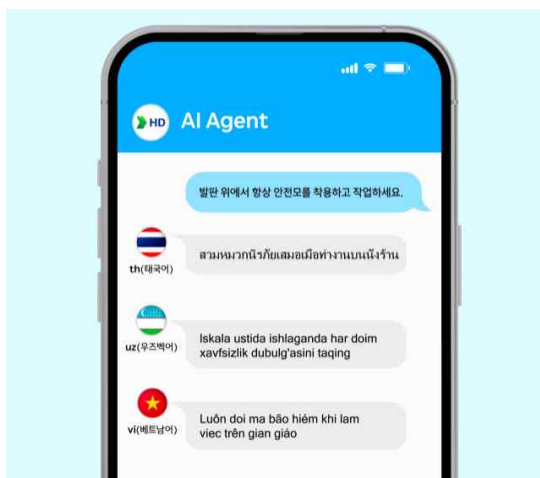




AI가 연구인력 돕고 공정관리...“조선소 생산성 30% 높일 것”

- HD한국조선해양은 2030년까지 미래첨단조선소(FOS)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6년까지 FOS 2단계인 ‘연결-예측 최적화된 조선소’를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
 - FOS는 AI, 데이터, 가상·증강현실, 로봇릭스, 자동화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구현된 미래형 조선소로 이를 통해 조선소의 생산성을 30% 향상하고 공기는 30% 단축할 것으로 기대
 - FOS 2단계는 1단계에서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으로부터 선박 건조의 빅데이터가 전송되면 이를 AI가 학습해 인력·자재·제품·설비 등 공정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AI와 머신러닝을 활용
- HD현대는 IT 기업들과도 협업하며 자체 보유한 2억 건 이상의 조선·해양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네이버의 대규모언어모델 AI ‘하이퍼클로바X’를 적용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방침

<AI 에이전트>



- 또한 조선소 및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련 이슈들을 CCTV와 AI를 기반으로 관제하는 통합안전관제솔루션(HiCAMS)를 적용 중
 - 관제 중 컨테이너 유실, 연기·화재, 구조 요청, 안전 규정 위반,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AI가 이를 인지해 신속한 대응을 도움
-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맞춤형 AI 번역 기술도 사용하고 있으며, 올해 6월 생성형 AI 기반의 번역 서비스 ‘AI 에이전트’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선박 건조 현장에 적용
 - AI 에이전트는 선박 건조 현장의 전문 용어 및 방언 번역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국내 조선 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2만 명의 외국인들의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
출처 : 서울경제(2024.09.02.) AI가 연구인력 돕고 공정 관리...“조선소 생산성 30% 높일 것”



로봇이 짐 나르고 주차 안내... AI 날개 다는 인천공항

- 인천공항은 여객서비스, 공항 운영, 업무 시스템, 시설 인프라 등 4대 혁신 분야로 나누어 다양한 업체와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공항으로 변화해 나갈 것을 선포

- 여객서비스 분야가 4건으로 가장 많으며 식음료서비스, 챗봇 서비스, 운송서비스 등이 있음
 - (두산로보틱스) 식음료서비스(F&B) 로봇과 수화물 리프팅 로봇을 도입하는 등 작업자의 단순한 반복 업무를 지원하고 노동 강도를 낮춤

<인천공항에서 고객이 주문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식음료서비스(F&B) 로봇>



- (네이버 등)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의 음성이나 질문을 인식해 문자로 변환하거나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는 기술을 제공
- (현대기아차) 자율주행 개인용 모빌리티를 활용한 여객운송서비스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 운영
- (HL만도)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내외 주차장 로봇 도입

- 공항 운영 분야에서는 보안업무 관련 업무협약 3건이 있음
 - (현대자동차, 보스턴다이내믹스) 보안업무를 담당할 사족보행 로봇 개발
 - (유니티코리아) 대테러대응 시뮬레이션 및 디지털전환 공동 연구개발
- 업무 시스템 분야에서는 삼성SDS와 'AI 기반 회의록 작성 및 요약'을, 시설 인프라 분야에서는 '승강기 안전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디지털 기술 도입'에 관한 협약을 각각 체결

출처 : 동아일보(2024.08.27.) 로봇이 짐 나르고 주차 안내... AI 날개 다는 인천공항



커지는 ‘리걸테크’ 시장...국내선 규제·인식 부족으로 걸림돌 많아

■ 리걸테크는 법률(Legal)과 기술(Technology)의 합성어로 자동화, 빅데이터, 블록체인, 챗봇 등 첨단 IT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

- 리걸테크는 서류 검토, 상담 업무 등을 대신 처리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비용 절감과 접근성 향상을 가능하게 해줌

- 리걸테크의 서비스 영역은 ▲변호사 검색 ▲법률문서 자동화 ▲실무 수습 관리 ▲판례분석 및 전략 수립 ▲법률정보제공 ▲준법감시 ▲법률교육 ▲온라인 분쟁해결 ▲전자증거개시 등 9가지로 구분

- 미네소타대학교의 ‘AI를 활용한 법률 업무 퀄리티 개선 및 시간 단축 효과’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법률 분야에서의 AI 활용은 특히 문서 작성 시간을 단축*시키는 것으로 나타남

* 고소장 24%, 계약서 32%, 취업 규칙 21%, 고객 메모 12% 단축

■ 글로벌 리걸테크 AI 시장 규모는 2021년 81억 달러(11조 원)에서 2027년 465억 달러(64조 원)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

- 시장조사기관 트랙스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세계 리걸테크 업체 수는 8,890여 곳, 전체 투자 규모는 19조7000억 원에 이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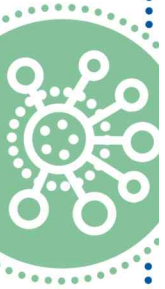
- 리걸테크 산업은 특히 북미, 유럽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이 다소 더딘 일본에서도 일부 법률 서비스에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산업 육성 중

- 국내에서는 ‘로톡’을 운영하는 ‘로앤컴퍼니’가 인공지능 서비스 ‘슈퍼로이어’를 출시하여 법률 검색, 서면 초안 작성, 문서 요약, 사건 기반 대화 등 서비스를 제공 중

■ 국내에서는 규제와 인식 부족 등으로 산업 성장, 소비자 편익,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존재하며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전략과 산업 환경 마련이 필요한 상황

- 최근 일부 법률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 단체 사이에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 등

- 국내에서는 규제와 인식 부족 등 여러 문제들이 직면해 있어 리걸테크의 발전 속도가 더딘 편으로 관련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



출처 : 뉴스핌(2024.09.20.) 커지는 ‘리걸테크’ 시장...국내선 규제·인식 부족으로 걸림돌 많아